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이리 떼로 향해 가는 양들

(마 10:16-23)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이리 떼와 같은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이리 떼를 양들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

뱀은 자기 방어가 탁월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뱀 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리 떼 가운데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미명하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뱀 같이 자기를 방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성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 떼와 같은 세상에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여 이리 떼와 같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며, 총독들과 왕들 앞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19-20절). 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재판석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을 했는지 그의 논리적인 진술에 아무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행 4:13-14).

3. 끝까지 견뎌야 한다

우리가 뱀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 어쩔 수 없는 핍박과 환란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그냥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핍박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 시간이 길 수 있으나 고통의 끝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리 떼와 같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양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Sheep Moving toward a Herd of Wolves

(Matt. 10:16-23)

In all ages, those who believe Jesus are to be followed by hardship. Nevertheless, the reason why Jesus sends us who are sheep to a herd of wolves in the world is that God makes wolves to be food for sheep.

1.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It is excellent that snakes have a good defense mechanism. It means that being as shrewd as snakes is that we should have wisdom in order to protect our life. We are sheep among wolves. We should refrain from acting thoughtlessly, and we should have the victory with the wisdom given by God to protect ourselves like snakes against the world.

If so, what does it mean to be innocent like doves? No matter the situation, we should never change our Christian character.

In the world of wolves, we should be wise like snakes and innocent like doves, and we must be a wonderful and faithful people so that we can engage the world like wolves with the Gospel.

2. We should believe the spirit is with us

Just as Jesus warned them, his disciples would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s, flogged in their Synagogues, arrested, and judged before governors and kings. However, Jesus said, "Do not worry about what to say or how to say it" (vv.19-20). At that time, the spirit of your father will tell them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at the public judg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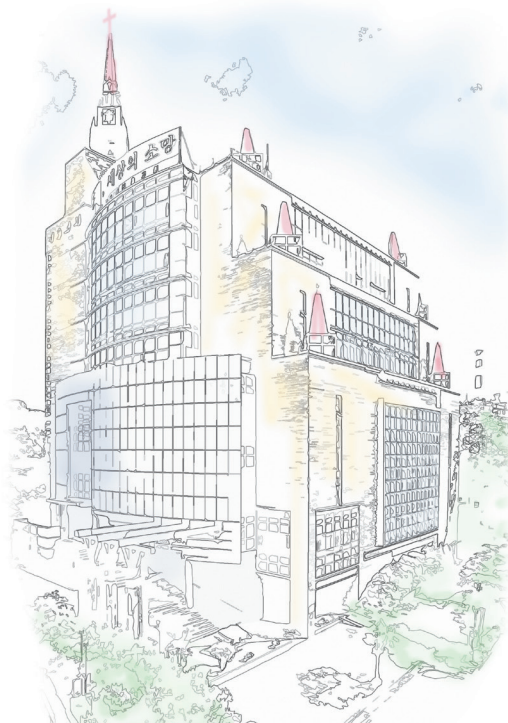
After Jesus ascended to heaven, the spirit came to His disciples. His disciples courageously preached Jesus resurrection but they were brought to the local councils. Since Peter who was only an unschooled fisherman spoke to judge very courageously and logically, nobody was able to find any contradictions from their logical statement (vv. Acts 4:12-14).

3. Endure sufferings to the end

No matter how wise like snakes and innocent like doves we live, we sometime, have to undergo sufferings during persecution and hardship. In that case, Christians must endure to the end. Jesus says that anyone who endures to the end must be saved. The persecution and suffering of Christians cannot be forever. Sometimes it could be long but at the end of suffering there is Jesus who will wipe away our tears and save us.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the sheep sent out to the world which is a herd of wolves. But don't be afraid of anything! Be fully armed with wisdom like snakes and innocence like doves! By enduring to the end, keeping on our faith, there will be victor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of faith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4년도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오늘 주일 I·II·III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후 교구 총회 - 본당에서 / 타부서는 다음 주일에 임명

2014년도 당회 조직, 당회원 봉사부서, 남녀 서리 집사 및 협동집사, 협동권사, 은퇴협동집사, 은퇴협동권사, 교구일꾼을 오는 I·II·III부 예배 시간에 임명한다. 오늘 주부와 함께 배부된 2014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4년 한 해 교

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3부 예배 후에는 교구 총회에 본당에서 모인다.

모든 2014년도 섬김위원들은 2014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하며, 2013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 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교구위원회
지도 유문건 위원장 조정식
서기 이강진1 부서기 주동재 한상준 회계 최광성

1교구	지도 유문건	교구장 양춘경	부교구장 이우진
2교구	지도 황 광	교구장 이동만	부교구장 최형열
3교구	지도 조원영	교구장 송인권	부교구장 오유식
4교구	지도 박영준	교구장 최광성	부교구장 최차순
5교구	지도 박영준	교구장 최학인	부교구장 임선철
6교구	지도 박영준	교구장 안인호	부교구장 김대웅
7교구	지도 박영준	교구장 이영기	부교구장 이태원

8교구	지도 서명철	교구장 서문석	부교구장 한상준
9교구	지도 서명철	교구장 최양진	부교구장 송인수
10교구	지도 서명철	교구장 오지열	부교구장 권장환
11교구	지도 황 광	교구장 박정선	부교구장 김광룡
12교구	지도 서명철	교구장 오광환	부교구장 김성준
13교구	지도 장석남	교구장 조정식	부교구장 주동재
14교구	지도 조원영	교구장 이계홍	부교구장 차도훈
15교구	지도 황 광	교구장 신용식	부교구장 정완진
16교구	지도 유문건	교구장 이강진1	부교구장 최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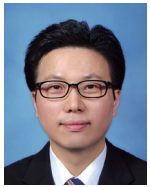
2014년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자 접수 - 사무국에서

2014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교역자 부임



박영준 부목사

- 부임 12/1, 1976년 1월 26일생.
- 호남신학대 신학과 졸.
- 전남대 대학원 교육학과 졸 (M.A. 상담심리학 전공),
-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 (M. Div.),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신학과 졸 (Th. M. 목회상담학 전공)
- 가족: 이현순 사모.

- 사역: 4, 5, 6, 7교구, 찬양위원회, 설교사역도교부, 사랑부, 금요기도회



조원영 부목사

- 부임 12/8, 1976년 12월 7일생.
- 아세아연합신학대 신학과 졸.
-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 (M. Div.).
- 가족: 이진희 사모, 아들 2명.
- 사역: 3, 14교구, 비전2020, 소요리 문답부, 상담부,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준권 부목사

- 부임 12/2, 1979년 5월 20일생.
- 원광대 토목공학과 졸,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 (M. Div.), 장로회신학대 교육대학원 재학(기독교교육 전공).
- 가족: 유정민 사모, 아들 1명.
- 사역: 청년부, 신혼가정부, 결혼 예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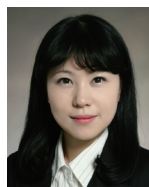
장재원 준전임전도사

- 부임 11/10, 1978년 10월 7일생.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졸
-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 (M. Div.)
- 가족: 진미연 사모
- 사역: 청년1부 A팀



이재웅 준전임전도사

- 부임 12/1, 1981년 9월 8일생
- 영남신학대 졸,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졸 (M. Div.)
- 사역: 청년1부 B팀



양세라 교육전도사

- 부임 12/1, 1971년 9월 12일생.
- 국제예술대 유아교육과 졸.
- 총신대 사회부설교육원 신학과 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졸, 동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실천신학(어린이목회) 휴학 중.
- 사역: 유치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2)

(문 111)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정말로 20년간 다스렸습니까?

(답) 열왕기하15:27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이십년 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NASB에서는 20년 앞에 이탤릭체로 '다스렸다'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곰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면(15:25) 739B.C까지 사마리아에 자기 본부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20년간 다스렸다는 계산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32B.C에 호세아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에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그가 다스린 햇수는 20년이 아닌 8년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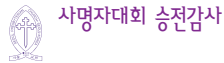
20년을 다스렸다면 752B.C에 쿠데타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로보암2세의 아들 스가라가 군대 장관 살롬에 의해 살해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롬은 보좌에 1개월만 있다가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베스의 아들 살롬은 쳐 죽임을 다하고(왕하 15:8-16)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앗수르왕 불이 745B.C년 이후에 므나헴을 치려하매 므나헴은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국 안에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앗수르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말라의 아들 베가는 스가라가 살해된 752 B.C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편의 대부분을 다스리기 위해 길르앗에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분명히 베가는 742B.C년 므나헴이 죽을 때까지 므나헴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는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와 화해 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브가히야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후 740(739)B.C년부터 사마리아에 거주했지만 사마리아를 다스린 것은 752B.C년부터로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그가 732B.C년에 살해되기까지 20년간 다스렸다는 말은 맞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7주간의 감동과 감사

VIP 작성 5,709명 / 방문 VIP 790명 / 결신자 487명 / 결신을 62% / 연속기도 참여자 4,791명



주동재 집사 (사명자대회 차장)

“목사님,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이쪽은 시누이이고요, 저쪽은 동서예요”

“이 친구는 제 죽마고우입니다”

복음에 빛난 자들로 늘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환한 얼굴로 VIP를 소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나 훌륭해! 우리를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

경로당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는 전도자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솜사탕이 돌아 가고 맛있는 피자

가 구워지며 와플이 익어갑니다. 분주한 교사들의 몸놀림에 큰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교회학교 새생명축제가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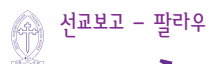
자율로 하면 빈 시간이 많을 것이란 우려 속에서, 기도현황판에는 빈칸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 샬롬 권사님들의 심야시간대 참여가 기폭제가 되어 중직자, 일반성도들의 참여로 완벽한 모자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전년대비 13%이상이 늘어난 연인원 4,791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연속기도의 기네스를 이루며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5,700명이 넘는 VIP를 작성하였으며 8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초대, 400명이 넘는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다음 세대들을 일깨

우는 ‘온가족 토요새벽기도회’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 잔치는 갈급한 심령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치유의 역사에 감사, 많은 결실을 주심에 감사, 교회 설립 22주년 감사, 임직 감사 등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심야기도를 이끌어 주신 권사님들을 비롯 식당, 주차 안내 등 곳곳에서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손길에 주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팔라우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팔라우는 필리핀 지역 피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사람의 아픈 상처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섬나라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정성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된다면 서울교회와 한국인 선교사인 저희들을 다시 한 번 귀하게 생각할 것으로 믿습니다.

구제현금 집행방법은 두 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파괴된 집을 수리하는 일과 생필품을 구입할 경비를 지불하는 것.

둘째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정신적, 영적으로 걱정 근심을 덜어주며 영적 평안을 제공하는 음악회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팔라우 방문 일정은 1월 9-12일입니다. 두 번의 연주를 통해 팔라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대주장 및 귀빈들 초청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초청하

여 위로와 힐링의 음악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서울교회에서 팔라우 가양절 태풍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신다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재민들이 시급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식수(물)입니다. 섬에서는 빗물을 받아 사용했는데 지붕이 모두 파괴되어서 빗물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식수가 시급합니다.

초등학교 건물도, 가옥도 보수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이재민들에게 그리고 팔라우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것입니다. 또한 팔라우 정부 역시 무척 고마워 할 것입니다.

한 민간차원에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정부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라우에서 정상진 선교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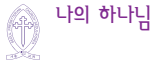
곧 오소서 임마누엘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맞는 달력을 만 들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추수할 때를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기독교인다운 삶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教會曆)이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된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을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한다.





물에 떡을 던지는 사람



하영수 장로
(16교구)

그날도 농부는 보자기에 싼 음식을 집앞 강물에 던지고 집으로 가는데 말을 탄 한 떼의 군마가 마을로 들어가 회당장을 앞세우고 그 농부의 집에 와서는 “그대가 핫산이라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를 군마에 태우고는 며칠을 달려 궁궐로 가서 왕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대는 왜 음식을 강물에 던졌는가?” 묻는 왕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상적 부터 입으로 전해오는 말이 이상하고 궁금해서 과연 그런지 보려고” 했음을 고해 올렸다.

부왕을 따라 사냥을 나간 왕자가 처음 보는 산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대열에서 낙오가 되어 방향을 잃고 해마다가 가파른 비탈에서 실족하여 강물에 빠지고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다 작은 섬에 걸려 겨우 목숨은 구했으나 무인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기진하던 중 하루는 떠내려 오는 가족부대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루 끼니에 넉넉한 음식이 있는지라 먹고 기운을 소생했는데 그 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떠내려와서 여러 달을 연명하다가 군사에 의하여 발견되고

환궁하여 자초지종을 부왕께 아뢰니 왕이 군사를 풀어 온 나라 강변 마을을 수색한 끝에 가족에 쓴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기인을 찾았고 왕 앞에 불러와서 보니 던진 음식이 장차 보좌를 이을 왕자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고 충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 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도로 양변에 성도님들의 차가 꼬리를 물고 드나들며 주차하는 바람에 지나는 차량과 주변 아파트와 노선버스에 많은 불편을 줌으로 덕스럽지 못함으로 지난 3월부터 교회는 안내와 정리를 하고 버스 운전자 분들에게 정중한 인사와 생수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보더니 차츰 눈인사를 하고 제법 친숙해지기도 한다.

이를 시작하지 얼마 안되어 성도님 가정에서 잘 구워진 빵을 기사님들에게 드리라고 맡겼다. 새벽부터 운행하느라 식사를 못한 기사님들이 빵을 보고는 매우 반가워한다.

어느덧 이 섬김을 시작한지도 9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버스들과 친숙해 지고 차량들도 더러 관심을 보인다.

격무로 지친 몸과 주일 마다 두 차선을 막고 있는 교회 차량으로 불편했던 심기가 교회의 작은 정성으로 잠시나마 기분전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

해본다.

“너는 네 떡을 물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전도서11:1)영원불변하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성도님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랜드벨과 이어(대장:김형배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송재월 집사의 지휘로 “목마른 사슴”, “주의 이름 높이어”등의 찬양곡과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등 찬 아홉곡을 합주와 앙상블로 연주한다. 대전 핸드벨과이어가 함께 연주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 그리고 소프라노 신모란 집사가 함께 영광의 찬양을 연주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2월1일(주) 섬김의교회 정수길 담임 목사 취임감사예배 시 설교를 한다. 7일(토) 사랑의 쌀운동, 몽골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이사 : 6교구 양상용 집사,박계순 집사
동작구 신대방1동 우성2차 102동 507호

■ 주간식당봉사 : 리브가전도회(12.1) 스테반회 (12.8)

■ 금주의 식사 : 이민화 권사,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노재균 목사 안수식 감사드리며)

스테반회 총회

12월 5일(목) 오후 6시 101호

스테반회(회장:김광룡 집사) 총회가 12월 5일(목) 오후 6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스테반회원 전원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 바란다

권사회 연합총회

12월 4일(수) 오후 1시 101호

1, 2, 샬롬 권사회 연합총회가 오는 12월 4일(수) 오후 1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신임 권사를 포함한 권사회 회원 전원은 이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란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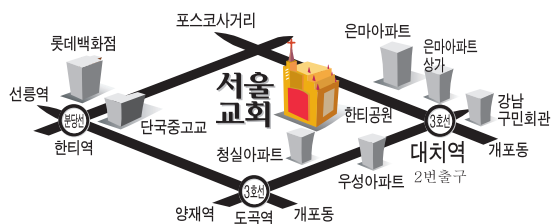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임직 받으신 4분의 장로님들, 31분의 안수집사님들, 63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2014년도 섬김위원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2. 새롭게 부임해 오시는 3분의 부목사님들, 2분의 준전임전도사님들, 그리고 1분의 교육전도사님을 통해서 각 교구와 부서에 건강한 부흥이 임하도록
3. 대립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